

“상생·협력으로 동반성장 ... 구도심 활성화”



개점 15주년 맞은 롯데백화점 광주점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강화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18일로 개점 15주년을 맞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지역장 류민열·사진)은 12일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해외명품 유치, SPA(제조·유통 일괄화 의류 매장) 브랜드 대거 입점으로 퇴색해가는 구도심을 활성화해 ‘패션 명소’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외 명품점 유치·SPA 브랜드 입점 광주 대표 ‘젊음·패션 명소’ 거듭날 것 대인시장과 협약 ... 충장으로 상권 부흥

롯데백화점은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충장으로 일대 잇따른 대형 쇼핑몰 오픈으로 활기를 찾아가는 구도심에 주목하고 있다. 신규 개발된 상무지구 등으로 상권이 옮겨지면서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었던 구도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점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던 20~30대 고객 방문률이 최근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앞으로 구도심 재개발 속도가 가속화 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무너져가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문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해 왔다.

젊은 감각을 반영한 최신 인테리어로 매장을 개편했으며 유니



클로, 자라 등 기존 백화점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SPA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켰다. 또한 문화사업 확대를 위해 총 23억원을 들여 롯데시네마 전관을 개설했고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롯데문화홀’을 열었다.

올해는 ‘젊고 패셔너리한 백화점’에 역점을 맞춰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리모델링은 과거 패션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충장으로 일대 상권을 부흥시키는 한편 리뉴얼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프리미엄급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열고 루이비통, 프라다 등 명품상을 대거 유치해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변 상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근 전통시장인 대인시장과 상생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 개방과 서비스교육,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온 롯데백화점은 사회봉사, 환경보호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상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자의 거리, 예술의 거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지역장은 “젊은 감각의 쇼핑공간 마련과 최상의 친절 서비스 구현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차별화를 추구해 구도심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상반기 광주·전남 상장사 단기채무 지급 능력 둔화

13개사 유동비율 9.19%p 감소

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13개사의 올 상반기 유동비율은 97.11%로 전년말대비 9.19%p 감소했다.

유동비율은 1년 이내 단기채무지급능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1년 이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로 나눈 것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현금 동원력이 좋다는 뜻이다.

전체 유동자산은 3조 4465억원으로 전년말대비 3.34% 감소했으며 유동부채는 3조 549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5.81% 증가했다.

유동비율 상위사는 부국철강(35.3%), 화천기공(229.84%), 동아에

광주·전남지역 2013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유동비율

회사명	유동부채	유동비율	증감비율(2012년 대비)
금호산업	1,087,865	81.42	2.81
금호타이어	1,227,488	119.75	3.05
조선내화	115,700	174.60	27.69
보해안조	147,266	77.05	3.10
로케트전기	91,755	72.28	6.21
대우에이텍	222,235	45.06	-12.78
대우신소재	124,291	55.98	-11.33
케이피엑스화인케미칼	96,763	66.46	-11.01
디에스알제강	79,359	106.41	2.39
화천기공	55,967	229.84	-15.74
동아에스텍	25,599	198.78	-19.56
부국철강	32,114	351.35	23.53
광주신세계	242,564	40.50	-395.77

(단위: 백만원, %, %p)
(자료: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스텍(198.78%) 등의 순이었고 유동비율 증가 상위사는 조선내화(27.69%p), 부국철강(23.53%p), 로케트전기(6.21%p)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하이패스 할인제 부활해야”

한국소비자단체협 주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하이패스 할인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작년 6월 하이패스 할인제를 폐지한 뒤 659억4300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올해 말 화물차 심야 할인제를 폐지하고 작년에 도입한 주말 통행료 할증제에 따른 수익을 더하면 총 1530억4100만원의 추가 이익을 얻는다고 밝혔다.

반면 할인제 혜택 등으로 하이패스가 널리 보급돼 도로공사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하이패스 보급률은 작년 기준으로 40%에 달한다.

그러나 하이패스 할인제를 도입할 당시 도로공사가 한시 운영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아 할인을 받으려고 대당 15만원을 주고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정호승 시인 초청 힐링강좌

12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9층 이카데미에서 정호승 시인 초청 힐링강좌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 마디’가 10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전남 금융기관 예금 금감

대출 증가폭 축소

7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예금이 크게 줄고 대출은 증가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7207억원)했다.

예금은행의 수치는 전달 일시적으로 유입된 자금의 인출 등으로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등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로 전환(+809억원→-5357억원)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상호금융, 자산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감소로 전환(+3888억원→-1850억원)했다.

또 금융기관의 총여신은 증가 폭이 축소(+4335억원 → +2762억원)됐다.

예금은행의 여신은 기업대출이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됐으나 가계대출이 둔화하면서 증가 폭이 다소 축소(+2704억원→+1935억원)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돈 내고도 상품권 못받았다” 60%

한국소비자원, 피해 상담건수 집계

종이 상품권 49% 차지

상품권 구입 피해 중 60% 정도가 돈을 내고도 상품권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상품권 구입 시 피해를 봤다는 상담 건수를 집계한 결과 2200여 건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피해 구제를 신청한 545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상품권 사업자가 대금을 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59.4%)가 가장 많았다.

이러 상품권의 유효 기간 경과로 사용 제한(16.1%), 상품권 발행 업체의 폐업이나 가맹점과의 계약 해지 등으로 사용 불가(11.0%), 상품권 구입 대금 환급 지연·거부(7.9%) 등이 뒤따랐다.

피해 상품권 구입경로는 소셜커머스(68.1%)가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몰(6.6%), 매장 구입(3.5%), 선물(2.0%) 등이 뒤를 이었다.

상품권 유형별로 백화점·주유·문화 상품권 등 종이 상품권(49.0%)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온라인 상품권(38.7%), 모바일 상품권(11.2%), 카드형 상품권(1.1%) 등의 순이었다.

종이 상품권의 피해가 많은 이유는 다른 상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면 금액이 커 소셜커머스에서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면 소비자가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뒤 기업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제약 없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가 가능해진 데다 온라인을 통한 상품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판매 사기 등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법 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들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비파제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입학문의 ▶ 062-605-1114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인문	신 학 과	20	10	2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3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8	7	5
	유 아 교 육 과	10	7	3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교향음악)	6	4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테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15	-	5
	총 계	72	31	39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수시 1차모집	· 원서접수: 2013. 9. 4(수) ~ 13(금)	· 전형 일: 2013. 9. 26(목)
수시 2차모집	· 원서접수: 2013. 11. 11(월) ~ 15(금)	· 전형 일: 2013. 11. 21(목)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3. 12. 19(목) ~ 23(월)	· 전형 일: 2014. 1. 3(금)

■ 특별전형

- 전학과: 지역인재양성 전형
- 신학과: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봉사자, 교역자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전형
- 유아교육과: 가정주부 전형

■ 장학제도

대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입학특별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직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등 지급

만물이 있는 대학·인생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2길 36

www.kwangshin.ac.kr